제9장

한국 근대유학 연구

이행훈

1. 머리말

한국 근대 유학 분야 논문은 성리학 10편, 양명학 10편, 기타 10편 총 30편으로, 주제별로는 철학 10편, 유교개혁론 5편, 문명 담론 2편, 기타 13편으로 분류했다.

성리학 분야는 화서학파, 한주학파, 간재학파, 노사학파 등을 중심으로 문인 후학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세부적으로는 이기론, 심성론, 명덕론, 심설론 등의 성리학 주요 이론의 학파별 해석과 계승이 주요 논제였고, 논쟁의 통합을 모색했던 송준필도 다루어졌다. 성리학 분야 연구주제는 대체로 조선 후기 성리학의 연속과 심화에 초점을 두면서, 일제강점 시기에 유학이 항일운동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동한 정황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절의 정신으로부터 유교 종교화 운동, 유교개혁론, 유교 공론장 형성 등 근대 시기 유학의 다양한 면모가 조명되었다. 유교 종교화 운동은 근대 종교 이식에 따른 수동적·형식적 변화가 아니라 유교 내부로부터 제기된 자성과 개혁 의지가 원동력이다. 유교개혁론 연구는 성리학보다 양명학 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졌다. 박은식은 여전히 유교개혁론 연구의 주요 대상이다.

실심과 실학을 열쇳말로 양명학과 성리학의 접점을 탐색한 연구는 사상사적으로 주목할만하다. 아울러 박은식, 정인보 개인에 한정된 연구틀을 벗어나 동아시아 사상사적 관점에서 한국 근대 양명학을 다룬 연구도 속속 등장했다. 압도적인 제국주의 아카데미 속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한국 근대 유교의 일면을 환기한 이러한 연구는 문명 담론이나 근대성론의 보편·특수에 매몰돼 간과했던 한·중·일 삼국의 서로 다른 근대화 노정과 유교의 대응에 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하게

한다.

기타에서는 유교 지식인에 의해 출판된 근대 신문이나 학회지를 통해 그들의 유교 인식과 항일운동의 기반이 된 유교의 정신적 가치, 문명 담론에 반영된 유학 사상 그리고 근대 여성 교육 관련 자료에 보이는 유교적 여성관 등이 이채를 띄었다.

2. 학문별 분류

(1) 성리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오영	외재(畏齋) 정태진(丁泰鎭)의 삶과 사상	연민학지 31	연민학회
2	길태은	간재(艮齋) 『중용기의(中庸記疑)』의 특징 연구-수장(首章)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7	동양철학연구회
3	김근호	심설논쟁의 수양론적 의미-화서학파의 김평묵과 유중교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7	한국유교학회
4	김봉곤	愚山 李鉉五(1868~1923)의 蘆沙學脈 계승과 主理論의 전개	동양한문학연구 52	동양한문학회
5	김유곤	병암(炳庵) 김준영(金駿榮)의 성리사상(性理思想)-화서학파(華西學派)의 심설(心說)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6	김종석	20세기 유학자 남붕의 구학, 그 전개와 좌절	국학연구 40	한국국학진흥원
7	유지웅	고산 임헌회의 성리설 연구	양명학 52	한국양명학회
8	이규필	恭山 宋浚弼의 학문과 항일활동	영남학 7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9	임종진	한계 이승희의 사상적 특징에 대한 분석	퇴계학논총 33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10	최영성	노백재(老柏齋) 최명희(崔命喜)의 실천적 의리사상-'간문소학동자(艮門小學童子)'의 삶	한국철학논집 60	한국철학사연구회

성리학 분야 연구 추세는 첫째, 연구 대상으로 한주학파, 노사학파, 화서학파, 간재학파 등을 중심으로 조선 성리학의 학파적 계승을 다룬 연구가 새로운 인물로 확대되었고, 둘째, 연구 방법으로 19세기 이후 한국 성리학의 심설논쟁과 경전 해석학적 연구, 항일독립운동의 실천 기반으로서 성리설을 조명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정태진과 이승희(한주학파), 김평묵과 유중교(화서학파), 이현오(노사학파), 김준영과 최명희(간재학파), 이외에 간재에게 학문을 전수한 임헌회, 이황을 계승하여 심합이기설을 주장한 송준필 연구가 있고, 신학의 범람 속에서 성리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유교의 종교화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영남 유학자 남붕의 삶과 학문도 새롭게 조명되었다.

권오영은 이황의 주리론과 이진상의 심즉리설을 이은 정태진이 실심을 세우고 실리를 궁구하고 실행을 실천하라는 경세치용의 실학을 주장했다는 사상적 특징에 주목했다. 경전해석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길태은은 간재의 『중용기의』를 분석하면서, 성사심제(性師心弟)의 존성(尊性) 철학적 기초가 마련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간재 전우의 경학사상 연구: 『사서강설』을 중심으로」(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로 확장되었고, 공부론-『대학기의』, 인성론-『중용기의』, 도학론-『독논어』, 수양론-『독맹자』로 간재의 경전 해석 방법론을 특징지었다. 낙학파의 전우와 화서학파 유중교에서 비롯된 심설논쟁은 한주학파와 노사학파까지 가담하면서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됐다. 김근호는 유중교를 중심으로 화서학파 수양론의 특징을 인간의 도덕성과 도덕적 의무를 정당화하면서 도덕 실천의 공효까지 이론화하였음에 주목했다. 김봉곤은 노사학맥을 잇고 화서학파와도 폭넓게 교류한 영남 유림 이현오가 노사의 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진상

의 심즉리설 또한 수용하였음을 밝혔다. 김유곤은 리는 무위하고 기는 유위하다는 간재의 심설을 계승한 김준영이 본심과 명덕을 리로 보고, 심의 신 또한 리라는 이항로와 유중교의 심설에 대해 비판했음을 고찰했다. 김종석은 남붕의 『해주일록』을 통해, 20세기에 사단칠정과 이기심성론을 중심으로 한 유교 이념 보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유교 종교화 운동의 철학적 기반도 살폈다. 임헌회는 19세기 중반 기호학파 낙론계 성리설을 대표한 인물로 심과 기질을 구분함으로써 심의 차원에서 도덕행위의 근거를 확보했으며, 명덕주리 대신 명덕주기를 주장하여 낙론계 성리설을 통해 조선 성리학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유지웅은 임헌회의 철학사상이 화서학파, 노사학파, 한주학파를 비판하는 전우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음을 고찰했다. 이규필은 파리장서운동을 주도하고 3.1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성주지역 유림에 주목하면서, 심합이기론(心合理氣論)을 주창한 송준필의 학문연원과 의리정신을 조명했다. 임종진은 이진상의 주리론을 계승한 이승희의 항일독립운동이 도학정신에 뿌리를 두고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사상적 토대에서 이루어졌다고 논했다. 최영성은 간재의 문인인 최명희의 학문과 사상이 소학에 뿌리를 두고 의리정신으로 발화했음을 고찰했다.

(2) 양명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세정	현대 한국에서의 양명학 연구의 신지평	양명학 54	한국양명학회
2	김용재	한국양명학 연구의 諸문제-'하곡학'에서 '한국양명학'으로, 그리고 '실학'과 '천주교'와의 관계성 및 근대성에 착안하여-	儒學硏究 4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김윤경	근대 전환기 實心實學의 다층적 함의	양명학 53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	김윤경	근대 동아시아 지평에서 본 정인보 '조선학'의 사상적 토대	양명학 52	한국양명학회
5	노관범	대한제국기 박은식 유교개혁론의 새로운 이해	한국사상사학 63	한국사상사학회
6	신현승	정인보의 『양명학연론』과 근대 양명학파 계보의 재구성	한국사상사학 61	한국사상사학회
7	이난수	조선의 정신, 그 정체성에 대한 근대적 탐색-신채호의 '아'와 박은식의 '국혼' 그리고 정인보의 '얼'을 중심으로	양명학 54	한국양명학회
8	이혜경	식민지근대에 복권된 양명학-정인보의 양명학연론은 다카하시의 조선유학사에 대한 대항인가?	인문논총 76권 3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9	이혜경	천하에서 국가로-량치차오와 박은식의 보편원리의 행방-	태동고전연구 4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0	한상연	감통(感通)의 철학 :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의 『양명학 연론』과 F.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론』에 대한 현상학적 비교·연구	철학과 현상학 연구 83	한국현상학회

양명학 분야 연구 대상은 역시 박은식과 정인보가 주를 차지하는 가운데 연구 방식과 세부 주제가 다변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주제별로 눈에 띄는 연구를 개괄하면, 첫째, 박은식의 유교개혁론, 둘째, 정인보의 조선양명학 계보화와 '조선학'과의 연관성, 셋째, 량치차오와 박은식, 다카하시와 정인보, 정인보와 슐라이어마허 등을 비교한 연구가 발표됐다. 정인보의 사상이 조선학 운동에 사상적 기반으로서 또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마련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고찰은 한국 근대사상사의 단절적 인식을 바로잡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량치차오나 다카하시와의 비교연구는 근대성론이나 문명 담론에 편향된 한국 근대사상사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고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김윤경은 「근대 전환기 實心實學의 다층적 함의」에서, 근대 전환기 양명학적 실심실학이 하곡학파의 전유물이 아님을 곽종석, 전우와 같은 주자학적 실심실학을 들어 비교하고, 전자가 주체의 확립을 지향했지만, 후자는 보편의 확립을 지향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근대 동아시아 지평에서 본 정인보 '조선학'의 사상적 토대」에서는 국수주의로 흐른 일본의 국학, 배타주의로 변질된 중국의 장병린이나 대타성에 갇혀 있던 최남선의 조선학과 달리 정인보의 조선학은 '조선중심의 주체적 조선학'이었다고 주장했다. 노관범은 박은식의 유교개혁론이 '본령학문'과 '구세주의' 의식에서 량치차오의 『덕육감』을 해법으로 수용한 결과 출현했음을 논증했다. 신현승은 『양명학연론』을 통해 정인보의 역사관과 학문관을 검토하고, 한중 양명학사 기술의 특징과 근대 학술적 의의를 설명했다. 이난수는 신채호의 '아(我)'와 박은식의 '국혼(國魂)', 정인보의 '얼' 개념을 민족적 자아와 정체성 수립의 측면에서 고찰했다. 이혜경은 「식민지근대에 복권된 양명학-정인보의 양명학연론은 다카하시의 조선유학사에 대한 대항인가?」에서, 정인보의 양명학이 이노우에 데츠지로의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라는 일본적 서사를 수용하면서도, 다카하시 도루의 '주자학 일존의 정체된 조선'에 대해 비판하고 참된 유학의 회복을 도모한 조선학이자 실학이었다고 평가했다. 「천하에서 국가로-량치차오와 박은식의 보편원리의 행방-」는 보편원리로서의 중화주의를 상실한 량치차오와 박은식의 서로 다른 사상적 행로에 대해 살폈다. 한상연은 정인보와 슐라이어마허가 의식과 존재의 측면에서, 우리의 의식이 세계와 외적 대립 관계가 아니라 감각적·정서적으로 상응하며 세계와 근본적 통일성인 그 자신의 존재에 반응하는 행위자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양명학연구사를 고찰한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연구사 정리와 향후 연구 과제 제시는 한국에서 진행된 양명학 연구성과가 온축되었음을 실감케 한다. 김세정은 1970년대에서 현재까지 양명학연구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과제와 전망을 제시했다. 김용재는 한국양명학연구가 이제 하곡학이나 강화학에서 외연을 확장해 나갈 때가 되었다면서 성호학파의 양명학 평가와 서학과의 관계를 연구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양자 모두 '한국현대양명학'을 하나의 학문으로써 정립하려는 목표 아래 그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3) 기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정심	황성신문의 유학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철학논집 60	한국철학사 연구회
2	박준원	居昌 절의 정신의 확산-俛宇 학맥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81	동방한문학회
3	박태옥	개화기 유학의 실천적 변용과 근대 지향-서유견문에 나타난 유길준의 개화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9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4	심의용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의 변용에 대한 연구-운양 김윤식(雲養 金允植)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권 4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5	안승우	진암(眞菴) 이병헌(李炳憲)의 동이(東夷) 인식	동양철학연구 100	동양철학연구회
6	이수진, 김영	새로 발굴한 여성교훈서 〈부인수지(婦人須知)〉의 구성과 내용	문화와융합 41권 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7	이정민	장지연의 『여자독본』, 그 성격과 지향 : 새로운 여성상의 제시	한국사상사학 63	한국사상사학회
8	최영성	이병도(李丙燾), 『자료한국유학사초고 (資料韓國儒學史草藁)』 -한국유학사의 근대적 출발-	韓國思想史學 61	한국사상사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9	최정준	이병헌(李炳憲)의 괘변설(卦變說)과 책수론(策數論) 분석	율곡학연구 40	사단법인 율곡학회
10	황태묵	근대전환기 호남의 공론장과 유학적 관계망—호남학회와 '호남학보'를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 7권 4호	한국융합인문학회

성리학과 양명학 분야를 제외한 기타 10편의 연구는 동도서기론, 개화사상, 항일 절의정신, 유교종교화운동, 근대 유교 공론장, 근대 유교의 여성관 등 주제가 다양하다. 박정심은 『황성신문』을 분석하여 유교적 지식인의 자기성찰과 한계를 짚었다. 『황성신문』의 필자들은 근대국가체제 수립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국중심주의와 결별하는 문명사적 전환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문승을 비판하고 실지학문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족적 정체성 형성과 문명화를 지향하는 유학의 자기혁신 시도 가운데 일본중심의 동양주의를 별 성찰 없이 수용한 것은 한계였다고 평가했다. 박준원은 곽종석의 재전제자인 이기수의 자주독립운동과 절의정신을 「순국의사찬(殉國義士贊)」을 통해 조명했다. 박태옥은 주로 개화사상 및 문명론으로만 논의되던 유길준의 지향이 탈유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교적 이상세계와 맞닿으며 유교적 전통과 가치를 근대적으로 재생산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심의용은 김윤식의 동도서기론이 전통 사상에 입각하면서도 보편을 추구한 정신으로써 현대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안승우는 유교개혁에 앞장섰던 이병헌의 동이 인식이 동아시아 유교 문명의 시원을 통해 한국인의 문화적·민족적 정체성을 높이려는 사유였음에 주목했다. 이수진과 김영은 김평묵이 지은 여훈서 『부인수지』(1941)를 발굴하여, 유교정신에 입각한 도덕규범이 당대 부녀자에게 학습된 정황을 살폈다. 이정

민은 장지연의 『여자독본』이 전통적인 여훈서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면서, 가문에 종사하는 며느리에서 국가에 봉사하고 훈육하는 어머니상, 부부유별이 아니라 동등한 역할 수행의 배우자상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했다고 보았다. 최영성은 이병도(李丙燾, 1896-1989)의 『자료 한국유학사 초고』는 1949년 출판된 현상윤(玄相允)의 『조선유학사』와 함께 한국 근대 유학 연구 양상과 특징을 비교해볼 수 있다고 평했다. 최정준은 금문경학적 관점에서 기술한 이병헌의 『역경금문고(易經今文考)』의 괘변설과 책수론이 서괘적 논리에 기반하고, 역의 핵심가치인 중(中)을 지향했음을 고찰했다. 황태묵은 재경호남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호남학회와 『호남학보』를 통해, 지식인 공동체의 성격과 유학적 관계망을 탐색하고 공론장의 특성을 고찰했다.

3. 주제별 분류

(1) 철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길태은	간재(艮齋) 『중용기의(中庸記疑)』의 특징 연구-수장(首章)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7	동양철학연구회
2	김근호	심설논쟁의 수양론적 의미-화서학파의 김평묵과 유중교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7	한국유교학회
3	김봉곤	愚山 李鉉五(1868~1923)의 蘆沙學脈 계승과 主理論의 전개	동양한문학연구 52	동양한문학회
4	김유곤	병암(炳庵) 김준영(金駿榮)의 성리사상(性理思想)-화서학파(華西學派)의 심설(心說)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5	유지웅	고산 임헌회의 성리설 연구	양명학 52	한국양명학회
6	김윤경	근대 전환기 實心實學의 다층적 함의	양명학 53	한국양명학회
7	이혜경	식민지근대에 복권된 양명학-정인보의 양명학연론은 다카하시의 조선유학사에 대한 대항인가?	인문논총 76권 3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8	이혜경	천하에서 국가로-량치차오와 박은식의 보편원리의 행방-	태동고전연구 4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9	한상연	감통(感通)의 철학 :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의 『양명학 연론』과 F.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론』에 대한 현상학적 비교·연구	철학과 현상학연구 83	한국현상학회
10	최정준	이병헌(李炳憲)의 괘변설(卦變說)과 책수론(策數論) 분석	율곡학연구 40	사단법인 율곡학회

한국 근대 유학 연구에서 철학 분야 논문은 10편으로 분류했다. 성리학 분야는 심설논쟁을 중심으로 19세기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파와 그 후학의 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간재 전우를 다룬 연구처럼 경전해석학적 접근도 중요한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명학 분야는 인물

중심의 연구 경향에서 모처럼 탈피하는 모습이다. '실학'이라는 키워드로 성리학과 양명학의 '실심' 개념을 대조한 김윤경의 연구, 중국이나 일본의 사상사적 궤적과 차별화를 시도한 이혜경의 연구, 인식론과 존재론의 차원에서 서양철학과 비교한 한상연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여전히 박은식과 정인보가 중심이지만 동아시아 근대사상사의 시각에서 한국근대사상사를 재조명해야할 필요성을 환기하고, 현상학의 관점에서 정인보의 사상을 비교·분석하는 등 다양한 철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충분하다.

(2) 유교개혁론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석	20세기 유학자 남붕의 구학, 그 전개와 좌절	국학연구 40	한국국학진흥원
2	노관범	대한제국기 박은식 유교개혁론의 새로운 이해	한국사상사학 63	한국사상사학회
3	박정심	황성신문의 유학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철학논집 60	한국철학사연구회
4	안승우	진암(眞菴) 이병헌(李炳憲)의 동이(東夷) 인식	동양철학연구 100	동양철학연구회
5	황태묵	근대전환기 호남의 공론장과 유학적 관계망—호남학회와 '호남학보'를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 7권 4호	한국융합인문학회

유교 종교화 운동도 넓게 보면 유교개혁론의 하나이다. 공자교나 태극교가 대표적 사례인데, 당시 종교화 운동은 캉유웨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반면 남붕은 교당을 설립하면서도 신앙보다 교육적 기능에 주목했고 캉유웨이의 공교운동에서 나타나는 구국적·민족적 지향과 달리 유교의 보편적 진리를 실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 배경에는 정주 리학이 있었다. 곽종석의 심즉리나 유중교의 심즉기 주장

모두 심설에 매몰된 것이라고 비판한 까닭도 “성인은 천에 근본을 두고 부처는 심에 근본을 둔다”는 정자의 교훈을 존숭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이병헌의 유교 종교화 운동은 그의 동이 인식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지향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복희와 순, 공자를 선조로 삼음으로써 유교를 한국의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의 근원과 결부하고자 했으나 당대 유림으로부터 역사를 변조하고 성인을 모독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남붕이나 이병헌 모두 근대 전환기 유교의 위기로부터 종교화를 추진했으나 진리를 실천하고 수호하는 구체적인 방도는 달랐다. 박정심과 황태묵의 연구는 신문과 학회보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다수 유교 지식인의 유교 담론을 다뤘다는 점에서 종래 연구와 구분된다. 유교 지식인의 시대적 과제와 유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핀다는 점에서 박정심과 황태묵의 연구목적은 다르지 않다. 다만 전자는 『황성신문』의 유학 관련 담론 분석에 집중하였고, 후자는 호남학회에 관여한 노사학파, 화서학파, 간재학파, 향교 문인 등 유학자 관계망을 중심으로 공론장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에 특화되어 있다. 한국 근대 유학 연구에서 매체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방법론에서도 더 많은 고려가 요구된다. 그런데도 근대 전환의 주요한 특징이 매체의 발달이고, 유교개혁을 주장한 유교 지식인 다수가 신문·잡지 등의 근대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매체를 통한 한국 근대 유학 연구는 필수적이며 향후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3) 문명 담론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태옥	개화기 유학의 실천적 변용과 근대 지향-『서유견문』에 나타난 유길준의 개화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9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	심의용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의 변용에 대한 연구-운양 김윤식(雲養 金允植)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권 4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문명 담론 관련해서는 유길준의 개화사상과 김윤식의 동도서기론을 다룬 연구 2편이 있다. 1920년대 잡지 『개벽』에서는 유길준을 가장 대표적인 조선의 사회사상가로 뽑기도 했다. 당시 개화는 문명의 동의어였고, 핵심 내용은 서구화에 가까웠다. 그런데 박태옥의 논문은 후쿠자와 유키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유길준이 유교적 전통과 단절하지 않고 오히려 유교의 이념을 이끌어 주체적 개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격물치지 공부와 '일신(日新)'의 자세를 견지하며, 도덕적 책임에 기반하여 '자유'와 '통의'를 공동체에서 구현하는 인간상의 기획이 유교적 이상세계와 맞닿기 때문이다. 동양의 정신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서양 문물을 수용하여 문명화를 이룬다는 동도서기 논리가 동서가 융합하는 현대에 어떤 의미를 전할 수 있을까. 심의용은 이런 문제의식 아래 김윤식의 동도서기론 변용 과정을 추적하면서, 차이에 대한 이해로부터 더 나은 보편 추구라는 개방적 태도에 주목했다.

(4) 기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오영	외재(畏齋) 정태진(丁泰鎭)의 삶과 사상	연민학지 31	연민학회
2	이규필	恭山 宋浚弼의 학문과 항일활동	영남학 7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3	임종진	한계 이승희의 사상적 특징에 대한 분석	퇴계학논총 33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4	최영성	노백재(老柏齋) 최명희(崔命喜)의 실천적 의리사상-'간문소학동자(艮門小學童子)'의 삶	한국철학논집 60	한국철학사연구회
5	김세정	현대 한국에서의 양명학 연구의 신지평	양명학 54	한국양명학회
6	김용재	한국양명학 연구의 諸문제-'하곡학'에서 '한국양명학'으로, 그리고 '실학'과 '천주교'와의 관계성 및 근대성에 착안하여-	儒學硏究 4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신현승	정인보의 『양명학연론』과 근대 양명학파 계보의 재구성	한국사상사학 61	한국사상사학회
8	박준원	居昌 절의 정신의 확산-俛宇 학맥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81	동방한문학회
9	이수진, 김영	새로 발굴한 여성교훈서 〈부인수지(婦人須知)〉의 구성과 내용	문화와융합 41권 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10	이정민	장지연의 『여자독본』, 그 성격과 지향 : 새로운 여성상의 제시	한국사상사학 63	한국사상사학회
11	최영성	이병도(李丙燾), 『자료한국유학사초고 (資料韓國儒學史草藁)』-한국유학사의 근대적 출발-	韓國思想史學 61	한국사상사학회
12	김윤경	근대 동아시아 지평에서 본 정인보 '조선학'의 사상적 토대	양명학 52	한국양명학회
13	이난수	조선의 정신, 그 정체성에 대한 근대적 탐색-신채호의 '아'와 박은식의 '국혼' 그리고 정인보의 '얼'을 중심으로	양명학 54	한국양명학회

기타 논문은 13편으로 주제 또한 다양하다. 정태진, 송준필, 이승희, 최명희 등 개인에서 거창 지역 면우 학맥에 이르기까지 계몽과 항일운동에 앞장선 유교 지식인의 학문과 사상은 한국 근대 유학 연구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1970년대 이후 본격화한 한국양명학연구사를 검토하고 전망을 제시한 2편의 논문도 있다. 김세정은 시기별 정량적 분석과 주제별 분류를 거쳐 부록으로 한국양명학연구목록을 제시하였다. '하곡학에서 한국양명학으로' 연구 외연 확장을 강조한 김용재는 그 단초로 성호학파의 양명학 비판이나 천주교와의 관계를 예로 들었다. 이러한 제안은 한국양명학을 계보화하면서 어려움을 표출했던 정인보의 문제의식과 맞닿는다. 정인보를 직접 다룬 연구도 3편이나 된다. 양명학파 계보화 문제, '조선학'의 사상적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신채호의 '아'와 박은식의 '얼'을 함께 비교하기도 하였다. 사실 1920년대 최남선이 제기한 '조선학'은 단군의 역사적·문화적 고증에 치중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의 기원과 정체성을 정립하는 학술운동이었다. 김윤경과 이난수의 논문은 '조선학' 운동과 '근대 주체 기획'에서 정인보의 사상적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한국양명학과 조선학운동의 연결고리를 보다 선명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한국 양명학 연구자의 「한국양명학 연구의 諸문제-'하곡학'에서 '한국양명학'으로, 그리고 '실학'과 '천주교'와의 관계성 및 근대성에 착안하여-」는 경청할만한 여러 제언을 담고 있다. 그런데 과거 한국 양명학의 전개에서 정주 성리학에 속박된 측면을 논지 전개를 위해 지나치게 부각한 면이 없지 않다. 물론 퇴계를 위시하여 양명학을 이단으로 폄훼했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한국 양명학의 전개를 정주 성리학의 교조화와 사상적 탄압의 관점에 보면 사상사의 올바른 이해를 저해한다. 필자도 기술했듯이, 사상의 자유가 제한된 가운데서도 여러 유학자가 양명학을 공부했고 자신의 사유체계에 담아냈다, 또 사상사의 전개를 폭넓게 관찰하면, 조선후기 심설논쟁에서처럼 사상을 벼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 철학적 사유를 심화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근대 전환기 實心實學의 다층적 함의」와 같은 주제의식과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 먼저 '실심실학'이라는 용어가 양명학의 전유가 아님을 전제하면서,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공히 사용된 이 용어의 실제 함의에 주목한 점이 돋보인다. 즉, "근대전환기 양명학적 실심실학은 주체의 확립을 지향한 반면 주자학적 실심실학은 보편의 확립을 지향했다. '실심실학'에 대한 다른 함의는 실천론과 실천 양상의 차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필자가 행한 「근대 동아시아 지평에서 본 정인보 '조선학'의 사상적 토대」에서는 정인보의 사상이 국수주의 경향으로 흐른 일본과 중국의 '국학'이나 대타성에 입각해 자문화의 상대적 고유성과 우월성을 강조했던 최남선과도 달리 '조선중심의 주체적 조선학' 수립을 지향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근대 전환기 자문화

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찾는 시도는 타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촉발하였고 무엇보다 그 근저에는 민족적 위기의식이 자리한다. 정인보의 '조선학' 형성 과정은 세밀하게 고찰하면서도 정작 앞서 열거한 일본과 중국의 국학이나 최남선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데에 하곡학과 대종교의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여기에 이혜경이 진행한 「식민지근대에 복권된 양명학-정인보의 『양명학연론』은 다카하시의 『조선유학사』에 대한 대항인가?」와 「천하에서 국가로-량치차오와 박은식의 보편원리의 행방-」의 두 편의 연구가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평가와 전망

이상에서 살펴 본 한국 근대 유교 연구의 특징과 성과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심성논쟁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까지 조선후기 성리학이 사상적 영향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는 유교 종교화 운동과 항일운동에도 정신적 기반을 제공했다. 둘째, 근대 전환기 신문, 학보 등 매체인문학적 연구의 활성화 추세다, 방법론적 보완이 보태진다면 한국 근대 유교 인식과 유교적 공론장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박은식과 정인보를 위시한 양명학 연구가 인물 중심에서 동아시아 사상사로 시야를 확장하고 비교연구를 통해 근대 국가체제에서 한국 양명학의 이채를 발했음을 규명했다. 이밖에 문명주의자로 여겨졌던 유길준이 유교와 단절하지

않고 유교 이념을 문명론에 담아내었음을 고찰하고, 『부인수지』, 『여자독본』에서 유교적 관점의 근대적 여성상 형성 사례를 발굴하여 조명한 것은 하나의 소득이었다. 이는 한국 근대 유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한국근대사상사 인식에 남아있는 전통과 근대의 단절적 인식을 걷어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사회에서 유학 연구는 '과거의 유교'를 '현재의 유교'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제조업에 기반한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혁명,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시대에 유학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학문적 긴장이 연구자들에게서 보인다. 다수 연구자가 양명학의 '실심' 개념에 주목하는 주된 요인도 전통적 가치와 이념의 현대적 적용과 활용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를 앞세우다 보면 자칫 연구 본래 목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한다. 문화운동, 대중적 실천으로 확장을 모색하는 한국양명학계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은 양명학 뿐만 아니라 성리학 그리고 한국 유학의 현대적 적용의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이다.